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사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3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5월 27일 (토) 제 163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KAPC 41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관계를 회복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1회 정기총회가 “관계를 회복하라”(빌4:4-7) 라는 주제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목사 202명과 장로 13명 등 215명이 참가했다. 첫날 저녁 7시에 열린 개회예배는 고택원 목사(총회장) 인도로 기도 전대구 목사(동남아), 성경봉독 박기억 목사(필라), 찬양 연합찬양대, 설교 유재일 목사(부총회장), 광고 허상회 목사(서기), 축도 천성덕 목사(가미)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재일 부총회장은 41회 총회 주제인 “관계를 회복하라(Restore Relation)”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총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집례 전덕영 목사, 기도 최중현 목사(동남), 성경봉독 이종태 목사(뉴욕서), 설교 전덕영 목사, 분병 분잔 총대 장로 일동, 축도 강기봉 목사(뉴욕서)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덕영 목사 고린도전서 11:23-26을 본문으로 “새 언약의 증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회원호명

서기 허상회 목사, 개회 선언 총회장, 환영사 오영석 목사(가미노회 노회장), 절차보고 서기 허상회 목사, 고시부 보고 고시부장 허윤준 목사, 임원선거 공천부, 신구 임원고체, 신구임원 휘장분배 영커리지 열린문교회, 취임인사 유재일 신임총회장, 광고, 출석위원 선정,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보고가 진행됐다.

고시부장 허윤준牧사는 목사고시에 24명이 합격했으며, 두 명이 불합격했다고 보고했다. 공천부를 통해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유재일 목사(가미노회) △부총회장 김재열 목사(뉴요남노회) △서기 최중현 목사(동남부노회) △부서기 신효철 목사(중



총회장 유재일 목사



부총회장 김재열 목사

부노회) △회록서기 조성훈 목사(가든노회) △부회록서기 제임스 곽(북미주노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이수삼 장로(동남아노회). 또한 총회 총무 인준은 김영기 목사로서 결의했다. 17일 새벽기도회는 이재덕 목사(뉴욕남) 인도로, 기도 지근우 목사(카나), 성경봉독 홍성우 목사(목기, 행12:1-19), 설교 정금태 선교사(중남미, “목회현장에서의 나의 신앙점검”), 축도 엄영민 목사(남가주)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 7시에는 세계선교회 주최로 선교의 밤이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성령의 주권 인정할 때 총만에 이른다!

2017 성령강림주일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이해 재조명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고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를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과 말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촉발된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인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2017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신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총만함에 이를 수 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교회가 왜곡 축소시킨 성령 하나님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뤘다. 올 성령강림주일에는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사상들이 어떻게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갔는지를 살펴본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권위를 독점하고 있던 로마가톨릭교회의 권위와 가장 첨예하게 대결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회 중심적 성경해석의 큰 물줄기를 성령 중심적 해석으로 돌려놓았다. 이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비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황이나, 모하메드나,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제세레파나, 신령주의자들을 단호히 배



성령강림으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에 철저히 의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것

척했다. 그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말

하는 '성령의 조명'은 카톨릭교회의 배타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해석학적 방법이었지, 인간의 이성과 인식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진리

가 성령에 의해서 조율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



14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NEW EPISODE MUSICAL

THE KINGDOM OF GOD

MUSICAL ETERNAL LIFE 2017

교문: 한기홍 목사 / 극본/연출/감독: 김현철

Actor
예수역: 김재원 / 가롯 유다: 김선혁 / 마리아: 최은원 / 베드로: PETER YI
막달라 마리아: 권혜연 / 미가엘: 박종진 / 간음녀: 이정열 / 가브리엘: 장진우
요한: 손문식 / 야고보: 이성민 / 빌립: 이창현 / 안드레: 지용욱 /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신희아
마르다: 박태정 / 시몬1: 허윤화 / 시몬 2: 김영란 / 시몬 3: 정성윤 / 시몬 4: 남희경
제사장1: 정창현 / 제사장2: 이성호 / 제사장3: 이민호 / 제사장4: 고성환
군병장: 구진수 / 군병1: 변봉천 / 군병2: Marvin Park / 군병3: 류기선
살로메: 정경숙 / 악녀1: 장지유 / 악녀2: 지미옥 / 악녀3: 김주리 / 여자천사1: 이수희
여자천사2: 서예원 / 시몬8: 윤혜숙 / 아역배우: 60명 / 엑스트라: 100명

Staff
팀마다: 이재정 / 행정팀장: 최지영 / 조연출: 이봉선, 공미연 / 기술 교문: 손영혜
안무가: 이수희, 지미옥 / 음악 감독: 최은원 / 무대 감독: 고유민 / 분장 팀장: 김주연
분장: 이운석, 박지상, 강민지 / 의상팀장: 소피아 최, 제니스 백 / 재봉: 유덕원
에배 팀장: 김주리 / 중보기도 팀장: 이창현 / 무대 진행 팀장: 정운경 / 소중감독: 셀리 황
소중 담당: 임상국 / 소중, 무 행정: 김장원 / 무 행정: 허윤화, 남희경, 새롬
자막 및 영어 번역: 김나희 / 광고 팀장: 제시카 리 / 무대미술: 김향숙 / 아역배우 팀장: 최현주
PHOTOGRAPHER: ROBERT CHOI / Poster, Flyer, CD Design: 최의정
Banner, Program Book Design: 이훈옥 / 헤어 디자이너: 이은희
의상 재봉: 강선자 / Child Care: Helen Kim

문의: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0-1006
www.gracemi.com

예매처: LA - LA 기독교 서적 센터 / 세리토스 - 북음사 / 플러튼 - 은혜 서점 / 가든 그로브 - 도르가 기독교 서점

일시: 2017년 6월 2일(금) 7시30 pm, 3일(토) 7:00 pm, 4일(주일) 6:30 pm 티켓: \$1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0833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HBS, 금융공학은 잘 가르쳐도 윤리는 잘 몰라

뉴스위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MBA들이 어떻게 해서 기업 윤리와 책임 저버리게 됐나' 보도(3)

젠슨 교수는 1980년대 2건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기고문을 통해 LBO(기업의 차입매수) 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업인수의 표적이 돼 해고될지 모른다는 위협으로 사실상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LBO로 부채가 크게 늘면서 경영자들이 회사 경영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경영자들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늘려 LBO에 참여하면 그들의 인센티브가 회사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젠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인수와 LBO로 미국의 경제 문제가 치유된다.

1980년 당시 미국의 150대 상장기업 중 22%가 1988년까지 합병 또는 인수됐으며 그밖에 5%가 비공개기업으로 전환됐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담배제조업체 RJR 나비스코의 인수 거래는 평소 사주경계를 게을리

케빈 머피와 공동 작성한 'CEO 인센티브는 금액보다 방식이 중요하다'는 글에서 경영자 보수의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다 할 만한 발언으로 서두를 열었다. 'CEO 보수 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급여가 아니다. CEO가 받는 수당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정작 큰 문제인 CEO 보수체계는 주목 받지 못한다.'

3년 뒤 경영자 보수 규제를 선

해왔다. 2011년 '금융에 무결성을 접목한다(Putting Integrity Into Finance)'는 논문으로 더 친절하고 상냥한 측면을 보여줬다. 공저자 워너 에어하드(에어하드 세미나 트레이닝 운동의 창시자)와 함께 젠슨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산의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 요인이 바로 무결성(도덕적 규범의 완벽한 준수)이다. 젠슨 교수는 "무결성을 높

했다. 하지만 그는 CEO-기관투자자,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이 자신의 편협한 욕구와 필요 이외의 문제들을 고려할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경영자들은 대리인 이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했다. 미국 경영자들은 그의 이론에 따라 회사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의 이론에 따라 주식과 옵션을 행기 시작했고, 그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시켜 단기 실적을 올렸다. 그 실적을 위해 명백한 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

젠슨 교수가 적대적 인수의 경이적인 세계를 논할 때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거기서 파생되는 내부자 거래다. 그런 범죄는 1986년 투자는행 드렉셀 변형 램버트의 데니스 리바이인이 체포되면서 처음 드러났다. 그는 내부자거래를 통한



시론

가정의 몫 : 인성교육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달에 살롱에 집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시카고에 사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이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일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런 여행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카고를 들렀다 오기로 했다. 딸 역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부부가 사는 LA에 들르기로 약속을 했다. 하루에도 못 미치는 짧은 체류 중에 우리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Karkomi Holocaust Exhibition)을 찾아갔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워싱턴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묘사가 심해서 지금도 끔찍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뮤지엄은 유대인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다. "The Family is the whole life and spirit of a Jew." 의역하면, 가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 전체이며 삶을 지배하는 정신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었다. 가정,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듯해지는 단어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우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그 결과 2천년 동안이나 유리방랑하던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고, 적은 인구지만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

가정은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가정은 가장 많은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는 부모다. 부모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밥샘 근무를 했다고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명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를 가지고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적어도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다. 그중에서도 인성교육만큼은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부모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인성이란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란 성품과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다. 옛날 대가족제도에서는 인성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예절을 배웠고, 인간관계와 세상은 법을 배웠다. 부모는 무엇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타이거 맘"이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에이미 추아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는 그 남편과 함께 "트리플 패키지/성공의 세 가지 유전자"라는 책을 썼다. 여기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가 있으면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1)우월감(Superiority Complex) 2)불안감(A deep sense of inferiority) 3)절제력(Impulse control). 그들은 이 책에서 성공한 민족이나 개인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유대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 이 세 가지가 작용하였다. 유대인에게는 선민의 식이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기에 그들은 성공했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성공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수천 년간 찬란한 문화민족이며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한국인들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항상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며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으로 칭송받을 만큼 절제력이 탁월하였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할머니가 끊임없이 너는 지도자라고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흑백혼혈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하였다. 마이클 조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세계 최고의 농구선수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항상 불안했다.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매일 1,000개 이상의 슈팅을 연습할 만큼 연습벌레가 되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특히 어릴수록 지나치다 싶을 만큼 부모로부터 자존감이 격려를 받아야 한다. 실수한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잘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자신감을 갖고 산다. 그런가 하면 이 공식에 의하면 너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지나치면 인성에는 해악이 된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성공의 요소가 된다. 또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절제하면서 살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런 인성적 요인은 다른 누구도 대신 교육시켜줄 수 없고, 있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적대적 인수에서 파생되는 내부자거래는 언급하지 않아 2003년 추가된 '리더십과 기업책임' 과정 효과는 미지수

하던 모든 CEO들에게 확실한 교훈이었다. 다운사이징이 경영자 '교회'의 찬송가가 됐다. 상당 부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와 적자 재정지출 덕분에 미국 경제는 1982년 이후 다시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월터 키첼이 2012년 HBR 기고문에서 지적했듯이 1950년대와는 달리 "경기호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외 경쟁력 강화, 기업인수 완수(또는 방어), 주주의 극대화 명목 아래 새로운 기업전략에 들어맞지 않는 사업체를 매각하고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그 무렵 젠슨 교수는 잘 나가고 있었다. "기업인수는 자원을 낭비하고 않고 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자에게 고액의 퇴직수당(golden parachutes)을 쥐도 주주에게는 이익이다" 같은 주장

1989년 HBS의 폴타임 교수가 된 젠슨은 1990년 HBR 기고문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했다.

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성과급이 아닌 한 경영자 보수 중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법의 발효 이후 많은 경영자의 급여 패키지가 증가했다(연봉이 100만 달러 선으로 집중됐다). 그뿐 아니라 연봉체계에서 스톡옵션으로 전환하면서 경영자 보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폭증했다.

1992년 포춘 500대 기업 CEO의 평균 소득은 270만 달러였던 반면 2000년에는 1400만 달러에 달했다. 보수 대비 스톡옵션 비율은 1980년대 19%에서 2000년 50% 선에 육박했다. 그와 함께 단기성과주의와 경영자들의 경영 실적 '관리' 경향도 두드러졌다. 공격적인 회계기법을 활용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의 근거로 삼는 실적 캐노피를 '매끄럽게' 손질했다.

근년 들어 젠슨 교수는 자신의 유산을 수정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계속

이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다고 주장하며 "무결성은 가치 극대화와 멋진 삶을 위한 필요(하지만 충분은 아님) 조건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보다 교수 중심적의 문제점을 더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을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젠슨 교수는 무엇을 성취했을까? 한 세대의 기업가들에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더 천박한 동기를 추종하도록 했다. 그는 온갖 경제 방정식을 수립하고 자기 이론의 논리를 시험하고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그것은 이론에 불과

1,260만 달러 사취, 그리고 사법 방해와 기록파기 미수로 기소됐다. 리바이인은 차익거래자 이반 보에스키를 끌어들이고, 보에스키는 마틴 시겔(HBS 1971년 졸업)을 끌어들이었다. 시겔은 투자은행 커터 피바디 출신으로 당시 드렉셀 변형 램버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화젯거리가 한 가지 있다. 수사당국은 언론 주식의 내부자 거래 수사에서 리바이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성령의 주권 인정할 때 충만에 이른다

(1면에서 계속)

성경적 신학자로서 칼빈이 당대의 로마가톨릭교회와 주장하는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성경관, 신론, 기독교, 교회관, 구원론, 성례론, 설교론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다. 로마가톨릭에 따르면, 구원은 로마교회의 성직자들이 시행하는 일곱 가지 성례를 통해서 전달되고 주어진다 했다. 그러한 교회의 성직주의와 독선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사역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 칼빈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역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장해,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신학자다.

칼빈은 새로운 종교개혁의 신학, 특히 결정적으로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새롭게 제시했다. 면죄부와 고해성사, 미사참여로 혼돈을 겪고 있던 중세말기 로마가톨릭교회의 모순과 미신적인 신앙행태를 제네바교회에서는 완전히 철폐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촛불을 밝혀놓고 성자들의 공로에 의지하려는 기도는 금지됐다. 성령의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개인에게 믿음을 주며, 말씀으로 교회에 감동을 주신다는 점을 역설했다.

구원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적용사역에 의해 결정된다. 성령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심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고 만들어진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기에 성령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구원사역에 동참한다.

성령은 최초의 예루살렘교회를 창설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모든 구원의 방편들을 활용해서 성부의 계획



이 성자로 인해 성취됐고, 이를 적용하고 보전하는 구원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칼빈은 결국 기독교 신학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체계화시킨 것이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엽에 시작된 오순절운동이 여러 개의 교단을 형성하면서 마치 성령론을 부활시킨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순절과 교회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좁은 해석이다. 1907년 미국에서 오순절파의 방언운동 이후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어졌다는 주장도 잘못된 말이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방언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사역 중에 권능이나 신비주의적 은사를 받는 것만이 믿음 생활의 최고치라고 오해하고 있다.

결론으로, 칼빈은 그를 따르는 개혁주의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에 철저히 의존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칼빈은 분명하고

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말씀을 선포했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됐다.

기독교가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재물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며, 거룩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편집부)

재플린 임상목회 (4)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사전 의료 의향서)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재플린)

지난번에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글을 읽으신 분들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쉽게 작성한 양식을 위주로 미주에 계신 교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하고자 합니다(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환자가 많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보통 파트 1, 2, 3,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파트1은 의사결정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alth Care Agent라고 하는데 아플 때 환자를 위해 대신 의료적 결정을 내릴 사람을 말합니다. 파트2는 환자가 아플 때 어떤 형태의 치료를 원하는지 환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밝혀 놓으면,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파트3는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의료결정대리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하길 원하시면 파트1만 작성하면 되고, 만일 환자 본인만이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면 파트2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원하시면, 파트1과 2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셨으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족 및 친구들과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만약 나중에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새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밖에 다른 의료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치료법을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파트1(의료결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며, 환자가 필요할 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이 환자에게 가장 최선인지를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결정과 의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의료결정 대리인은 가족이 아닌 이상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와 의료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상태가 너무 중해서 의료결정 대리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담당의사가 가족들과 의논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결정 대리인이 되길 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본 서류에 기입해야 합니다. 의료결정 대리인은 의사와 간호사 기타 의료관련자 및 병원과 1차 진료소, 투여하는 약물과 검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신체와 장기를 기증하는 문제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밖에 가장 중요한 생명연장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인공심폐소생술)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호흡기, 즉 Ventilator입니다. 환자가 이런 적극적인 생명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DNR(Do Not Resuscitate) 혹은 DNI(Do Not Intubate) 기록과 표시가 환자 따라다니게 되어 진통제만을 투여하여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다가 편안한 임종을 맞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곧 임종하거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대리인이 환자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성직자나 재플린을 요청해서 가정에서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며 임종을 할 것인지 병원에서 입종 완화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역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의료결정을 도울 수 없게 되거나 의료진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대리인을 지정해놓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대리인이 이 서류를 작성한 이후 즉시 대리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환자 본인이 결정을 하다가 추후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부터 대리인이 나서도록 지정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미리 마치고, 하루 속히 건강하실 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기도하셔서 언젠가 천국으로 떠나실 때 부디 고통 없이 편안하고 은혜로운 천국환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97세나 되신 노인환자 분이 응급실에서 심장마비가 온 상황에서 사전의 향서도 없고, 어렵게 연락된 타주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한 시간 가까이 인공심폐술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0세가 넘는 노약자가 30분 이상 인공심폐술을 받는 것은 무술유단자나 권투선수에게 같은 시간 동안 가슴을 두드려 맞는 것과 유사한 충격과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환자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만, 심장과 폐기능이 떨어져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는 노인들에게 Full Code(생명이 붙어 있는 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적극적인 생명치료를 하라는 환자)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가장 귀중히 여겨져야 할 임종의 시간이 마치 고문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환자가 건강할 때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의논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았다면, 그 자녀도 의료진도 환자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기독교신자라고 하는 환자나 가족들조차 신앙인다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고령의 나이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생명치료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말기암환자 74세의 한 할머니는 완화치료(Palliative Care)만 받으면서 병원에서 보낸 2주일 동안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방 청소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와서 꼭 다시 만나자고 틀어 날 때마다 전도하다가 자녀들, 손주들 천송과 기도 속에 천국으로 떠나신 모습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모든 임상목회컬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tdspark@gmail.com

“관계를 회복하라”

(1면에서 계속)

회장 조문휘 목사 사회로 부회장 최해근 목사(부회장) 기도 후 가미노회 연합찬양대가 찬양했으며, 김경진 목사(전 회장)가 설교했다(“제자 맛디아, 행1:21-26”). 이어 우경철 목사(사기)가 파송선교사를 소개하고, 회장의 서약&공포후 파송식을 가졌다. 유재일 총회장의 파송기도, 권면 이용걸 목사(전 회장), 현금송 사모 합창단, 봉헌기도 이길호 목사(회계)가 있었다.

“중앙아시아에 미친 네스토리우스의 선교적 의미” 주제로 GMS 키르 기즈스탄 최갈렐 선교사가 특강했으며, 운영이사소개 및 경과보고가 있는 후, 광고 권혁천 목사(총무), 회계 보고 이길호 목사, 황은영 목사(전 회장)의 축도 마쳤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전세계에 총 106가정을 파송하고 있으며 이번 41회 총회에서 공제남(캐나다노회, 캐나다 원주민선교), 이진(가미노회, 캐나다 원주민선교), 이수삼(동남아노

회, 필리핀), 이상훈(캐나다노회, 니과라과) 선교사를 새로 파송했다. 이어진 회무처리를 통해 서기 및 총무 보고 그리고 헌의, 정원, 고소, 질의문서들을 다뤘다. 통과된 헌의안은 다음과 같다.

△남가주노회의 분립청원의 건은 두 노회로 분립하는 것을 허락 △KAPC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와의 친선교류의 건은 허락 △가주노회의 ‘노회구성요건(3당회) 실행 청원의 건은 노회구성은 목사 3인(3당회)으로 하며 구성요건을 상실한 노회는 총회의 행정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허락 △동남부 노회의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GCU) 총회 인준 청원의 건은 인준 함이 가한 것으로 허락 △북가주노회의 총회 직영신학교는 각 노회에서 파견한 이사들로 운영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허락(1년간 상임 교육연구위원회로 연구계 한다) △가주노회, 동남부노회, 동남아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가 헌의한 장로부

총회장 신철의 건은 부결 △뉴욕남 노회가 헌의한 노회 및 총회의 공문서 한영훈용 사용의 건은 허락 △뉴 잉글랜드노회가 헌의한 총회소집 일차 변경 청원의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허락.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목사회원만 1,250여명에 이르며, 30개 노회가 소속돼 있다.

미국내 21개 노회가 있고, 캐나다 노회와 남미지역에 브라질노회와 중남미노회, 동남아지역의 동남아노회와 오세아니아지역에 속한 뉴질랜드 노회가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주(영어)노회가 무지역노회로 소속돼 있다.

지교회는 650여교회이며, 세례교인 7만여 명, 유아세례교인 1만여 명으로서 총 8만여 명의 북미주 최대의 한인교단이자 해외 최대 한인장로교단이다. 또한 총회 파송 선교사가 30여개국에 107가정이 있으며 미 육군, 해군 군목 24명이 소속돼 있다.

제 42회 총회는 2018년 5월 22일 오후 7시 뉴욕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이런 때를 위해서라도

나에게는 종종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다. 전에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세계적인 여성 산악인 고미영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이다. 산을 등반한지 1년 반 만에 히말라야 8천 미터 이상 되는 세 개의 봉우리를 등정해서 산악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산악인인데, 히말라야 남파 파루바 정상에 오름으로 3-4년 만에 8천 미터 이상 되는 열네 개의 봉 중에 열 한개 봉을 정복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던 분이다. 그 히말라야 정상에서 그녀는 모교인 상명대학교 깃발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하산하던 중 해발 6천 미터 저지에서, 그만 약 2000미터 되는 협곡 아래로 추락해 죽고 말

았다. 열한 개의 봉을 올랐을 때 그 정상에서 그는 남은 세 개의 봉도 안전하게 등정해 대한민국여성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41세의 미혼으로써 자신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랑을 한 남자에게 열 네 개의 봉우리를 모두 오르고 나면 그때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자고 결혼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언과 약속은 그 히말라야 산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잘 되니까 염려할 것 없다고 활짝 웃으면서 산페인을 터뜨리고 기념촬영을 찍는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

는 '불행'이란 친구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그래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일들까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그 '친구'로 인해서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불행이란 친구가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할 또 다른 친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 친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친구 예수님이다. 그래서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여쭙 좋은 친구지' 하고 찬송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슬픔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심지어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한을 쏟아 놓기가 쉽다.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 되신 주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

다. 떡덩이 세 개만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란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오든지 그 때 꼭해야 될 일은 바로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인생 망쳤다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우리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에게 저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타령하는 것이 아니다. 한숨 쉬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더구나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한다. 바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란 친구를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심지어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한을 쏟아 놓기가 쉽다.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 되신 주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

다. 떡덩이 세 개만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란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오든지 그 때 꼭해야 될 일은 바로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인생 망쳤다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우리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에게 저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타령하는 것이 아니다. 한숨 쉬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더구나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한다. 바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란 친구를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심지어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한을 쏟아 놓기가 쉽다.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 되신 주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

다. 떡덩이 세 개만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란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오든지 그 때 꼭해야 될 일은 바로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인생 망쳤다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우리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에게 저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타령하는 것이 아니다. 한숨 쉬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더구나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한다. 바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란 친구를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심지어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한을 쏟아 놓기가 쉽다.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 되신 주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심령이 가난한 교회)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목숨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감동을 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인 에스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에 의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70년 포로생활이 끝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다.

즉 그는 앗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들의 강제 이주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자신들의 교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팔레스티나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유대인 귀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BC 537년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하며, 다윗 가문이 그 위를 잇게 되리라는 다윗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주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방인들이 볼 때 그들 유대인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고레스 왕에 의해 실행된 성전 기명의 반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준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2016년 9월에 출간한 랜스 윌나우 박사가 지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후보"라는 책을 소개하며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다.

그곳에서 윌나우 박사는 한 그룹의 목사들과 함께 첫 번째 트럼프 타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기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 다른 그룹의 목사님들과 트럼프 타워를 방문하고 돌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주셨

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은사는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 역시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트럼프는 교계 목사님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한 가지 특성을 봤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종교자유 상실 가능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964년 재정된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

언을 금지한 법이 폐지가 되면 그 이슈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트럼프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1. 깨달음이 있다(1-3)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 작업에 착수, BC 550년 메대를 통합하고, BC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그가 바사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해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 될 것이며,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16면으로 계속)

“감동이 감동을” (에스라 1장 1-11절)

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45장은 오늘 본문의 나타나고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시대 속에 일반은총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혹은 믿음이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트럼프며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나타내지 못했던 담대함이 있으며, 그에 의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0여 명이 모인 목회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도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지 않고 그저 놀란 사슴 모양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그동안 교회는 교회의 정치참여 금지법 뒤에 숨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문제, 인종문제, 성차별 문제, 동성문제 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는데 만약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예배

최근 된 사람의 문화와 삶의 양식들은 그 목표를 즐거움의 추구(entertainment)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벤트식을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 형태이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즐거움'(entertainment)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예배의 무너짐에 따라 예배 속에 나타나는 가장 유혹적인 것은 기쁨(joy)이 아니라 웃음과 즐거움(fun)이다. 성도들의 육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채널의 변화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고, 설교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효과의 측면(effectiveness)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며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고 하였다.

물론 예배의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예배의 신학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예배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서 예배자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세상과 신앙

- 화석화된 신앙, 타락한 예배자, 영적고갈 -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예배의 신학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예배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서 예배자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화석화된 신앙과 예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in the presence of God) 예배여야 한다.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목표(goal)에 도달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회복된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위로의 손길을 체험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떨림을 경험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사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에스겔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배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예배의 화석화(ossification of worship)이다. 대부분 예배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습관적인 내용에 대한 경직화 때문이다. 예배의 경직된 모습은 예배의 지루함을 야기 시키며, 예배의 역동성(dynamic)을 상실하게 만든다. 역동성이 상실된 예배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견고한 화석이 되게 한다. 화석이 된 공룡보다도 부지런히 겨울 먹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하는 개미에 생명이 있고, 역동적이다. 그러므로 화석화된 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진종일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있고, 아니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듣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저들 앞에 말씀과 성찬이 베풀어졌고, 일상의 식탁을 바꾸어서 성만찬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성찬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민감하며, 영의 눈을 열어 살아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

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명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간절함과 영성-자세와 태도

특히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이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깨닫고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와 같이 온 마음으로 이 일에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죄의 결박들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의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느냐 빈손으로 되돌아가느냐가 판가를 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념을 가질 때, 예배자들은 긴박성과 절박성,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절함은 자세의 문제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주시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with all your mind), 힘을 다하여(with all your strength)"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막12:30). 여기에서 주님은 마음 전부, 목숨 전부, 뜻 전부, 힘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이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노력을 요구하신다. 자세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러한 전 존재를 드리는 자세가 경주되어 그분을 섬기는 자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삶을 생기 있게 해주며, 하나님과 그의 세계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실천과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예컨대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성령에 충만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이나 경건으로 뜻을 같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예배자의 간절함과 참된 영성, 그것은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정신적 퇴락과 영적 고갈

21세기는 변화무쌍한 시대다. 엄청난 변화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며, 사람들의 관심 하는 바가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

져수의 몸으로 서 있었던 사도요한. 그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그 누구도 없는 텅 빈 빈들에서 있었던 날, 동료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고, 홀로 남아 외로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는 그 예배를 통해 일곱 촛대 일곱 별 사이를 거니시며,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보좌에 높이 계신 주님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면류관 벗어드리며, 참으로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도 경험하게 된다.

나의 즐거움이 아닌 천상의 예배

사도 요한과 같이 타질 듯 한 겸격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늘에 잇대어지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 질 것이다. 우리 앞에 있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는 장애물은 못 넘어갈 어려운 것도 아니며 또한 장애물이 꼭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 장애물도 단지 장애물일 뿐이다.

나의 즐거움과 위로를 위한 도구로서의 인간중심의 예배, 이는 세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사막광야의 갈증에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은 것이다.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예배의 참된 회복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며, 예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자.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자. 이제라도 의식을 바꾸자. 이제라도 헌상보다는 본질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하며 달려가자. 이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천상의 예배자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것이 귀할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회복

복잡다변한 시대 속에서도 회복된 예배 살아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더욱 힘있게 부흥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웃들을 섬기며 나갈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체험한 성도들은 미래의 세계에서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힘 있게 서갈 수 있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야 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함께 공유하도록 만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라. 그의 삶의 환경은 실로 광망적이었다. 비관적이었다. 차가운 지중해의 바람에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책임' 과정은 쟈슨 교수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하다. 내부자거래 규칙, 엔론의 몰락, 인간의 특성, 종업원 책임, 노동법, 기업시민, 사회적 책임 투자, 공익활동에 관한 토론과 함께 '투자자·고객·종업원·납품업자·대중 등 회사의 핵심 기반 각자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쟈슨 교수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끝>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목사님들이 장례식을 인도할 때 천국송예배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죽은 고인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 아닌가요?
-토렌스에서 Lee

A: 예수 믿고 죽은 신자가 죽은 후에 천국 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신자는 죽음 후에 그 영혼이 하늘의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16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의 약속에 의해 목사는 장례식에서 담대히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도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천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이 증거

국임성 여부를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은 카톨릭 사상이며 비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35년간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 죽은 자는 천국 갔다고 성경에 근거하며 장례식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목사가 장례식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며 사탄의 속임수라고 경솔하게 말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하늘의 천국에 임했다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 즉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신자들에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들을 중생교인으로 만들어야 하고 한사람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에서 성경을 암송시킬 때 요한1서 5장 11-13절을 제일 처음 암송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조예: 구원)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요한은 요한1서에서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좀 희미한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례 시 세례문답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신은 믿느냐고 질문하고 목사가 올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일단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세례를 줍니다(막16:16 참조).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지상교회의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분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아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써 온 영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 3.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 4.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목회철학과 비전
-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 4.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 5.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 6. 목사 2명 이상 추천서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17년 5월 17일 소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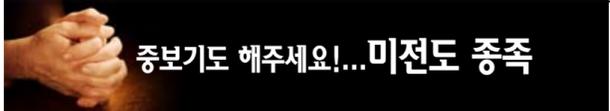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oc1newpastor@gmail.com

(2면에서 계속)

후속 수사에서 시겔, 폴 벨레리안(1977년 졸), 아이러 소롤로(1981년 졸) 등 HBS 졸업자가 다수 걸려들었다.

스캔들 당시 드렉셀 변형 램버트의 CEO는 프레드 조셉(1963년 졸)이었다. 그는 자신은 내부자 거래와 무관하며 그런 사실을 몰랐던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그 말을 믿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만 문책하는 선으로 끝냈다.

젠슨 교수는 2005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높은 주가를 떠받치는 전방에 관해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낙관하는 성향에 관해 논했다.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수치를 시장에 제시한다면 주가는 현실적인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학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는 아직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윤리다. 그리고 그의 말이 옳다. HBS는 금융공학은 잘 가르치면서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지는 잘 모르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2003년 HBS가 추가한 '리더십과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부탄인(BHUTANESE)



부탄인 사회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부탄인에 포함되는 티벳의 보티아(Bhotia), 동부 보티아로 불리는 샤르초프(Sharchop), 그리고 네팔인(Nepalese)의 작은 다양한 부족들이 있다.

세기에 티벳에서 부탄으로 이주해 왔고 티벳 피난민들은 수 세기에 걸쳐 부탄으로 들어왔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두고 있는 부탄은 매우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천둥 드래곤(용)의 땅이라는 의미의 "드루크 알(Druk-yal)"이라고 부른다.

삶의 모습 부탄인 대부분은 농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 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만 한다.

부탄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땅에서 살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다. 그러나 좀 큰 마을에서는 집들이 밀집돼 세워져 있고 대부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잘려져 있다.

을 벽에 바른다. 집은 대부분 2층으로 지어져 있지만 어떤 집은 4층짜리도 있다. 만일 동물을 키우는 가족이라면 가족은 1층 바닥에서 키운다.

부탄 여성은 대체로 모양과 색깔의 직물로 짜여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키라(kira)"라고 불리는 긴 천 조각으로 몸을 빙빙 감고 은브로치 한 쌍을 어깨에 짝는다.

다. 남자는 긴 어깨걸이 로브(robe) 또는 "고스(gos)"를 입는다. 낮 동안은 고(고)라는 의상을 벨트로 조여서 무릎까지 닿게 하고, 저녁에는 잠자는 동안 밑에까지 내린다.

신앙 티벳 불교(라마교)의 한 교파인 "홍의교(Red Hat)"는 부탄인들에게 지배적인 종교이다. 비록 거의 대다수가 불교신자지만 전통적인 티벳 사마니즘 신앙도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집은 불당보다는 작은 부처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단으로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제법 부유한 가정에는 정성들여 만든 제단과 램프, 향로 등 종교물품들도 구비해놓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국가와 고립돼 살아온 역사로 인해 부탄인들은 타민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선조들의 전통에 가치를 둔다.

부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고립성 때문에 복음에 저항적이다. 폐쇄적이고 전통에 묶인 벽을 깨뜨리도록 많은 기도과 선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진보교회 중심 캐나다에 보수적 복음주의교회 약진

이른바 '진보 교회'가 주류인 캐나다교회에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성경 읽기에 열심이며 기도에 집중한다.



캐나다 주류교회의 변화를 연구해온 시애틀퍼시픽대 제니퍼 맥키니 교수는 "신학적으로 분명할수록 명확한 신앙을 갖는 게 특징"이라며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캐나다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역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주로 성장하고 있다. 신학교의 경우 북미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학교는 미국의 고든콘웰신학대학원과 캐나다의 던데일신학교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티머칼리치 리서치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목회자 93%, 교회 출석성도 83%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론교육 반대" 홈스쿨링 쿠바 목사 정역형

가정에서 자녀에게 '홈스쿨링'(Home schooling)을 통해 크리스천 교육을 하던 쿠바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공립학교에서 무신론과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친다. 리갈 목사 부부는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미국 홈스쿨 옹호 단체(HSLDA,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는 쿠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리갈 목사 처벌에 반대하는 시인 3만여명의 서명을 주미 쿠바대사관에 전달했다.

쿠바는 전체 인구의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개신교 인구는 소수다. 개신교인 상당수는 마르크시즘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쿠바정부의 교육에 반대해 국외로 나가 신앙에 따른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 탄핵론에 펜스 부통령 부상

특검 수사까지 불려오며 일파만파 확산되는 러시아 스캔들에 미국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 집권 여당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후임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앉혀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17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펜스 대통령'을 열망하는 말들이 심하게 오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폴리티코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언론인들도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적 무게중심을 급격히 펜스 부통령 쪽으로 옮기는 모습이다. 보수 논조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셋은 이날 "유능한 인물(펜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됐다"면서 "트럼프가 제거됐다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소급 당선될 것도 아니고, 널 고서지 대법관이 해임되는 일도 없을 것"이란 내용의 칼럼을 썼다.

워싱턴 정가의 로비스트들 역시 벌써부터 펜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로비스트는 폴리티코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추진한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반면, 펜스 부통령은 의회에서 선호하는 예측 가능한 인물로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대감과 수근거림에 정작 본인은 적잖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잠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련하게 처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갑작스러운 인기 물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미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그가 '위대한 미국 위원회'란 이름의 정치 후원조직을 결성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학 졸업식장서 망신당한 펜스 미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사로 나선 대학 졸업식에서 특목히 망신을 당했다. 그의 연설 시작과 함께 1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항의와 저항의 의미로 졸업식장을 박차고 나와 버린 것.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노타테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하던 중 중층의 '퇴장 시위'를 겪었다. 가톨릭계 학교인 이 대학은 신입 대통령을 졸업식 연사로 초청하는 전통을 이어왔는데, 올해 졸업식을 앞두고선 학생과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대학 당국은 '평 대신 닢' 격으로 인도네시아 주지사를 역임한 펜스 부통령으로 연사를 바꿨지만, 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대체 연사' 역시 반기지 않았다.

이날 펜스의 연설 도중에 부모님과 함께 퇴장한 졸업생 카산드라 디마로는 현지 언론에 "트럼프의 정책으로 삶에 악영향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학생들의 퇴장 계획을 미리 알았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 브라운 공보 담당 부총장은 "노터데임대학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시위가 열렸던 곳"이라며 "학생들이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시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생을 비롯한 청중들의 '퇴장 시위'를 목격한 펜스는 멧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트럼프가 순방 중 무슬림 국가 정상들에게 행한 연설에 찬사를 보내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또다른 이유를 받았다.

이날 펜스에 앞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칼레브 조슈아 파인은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하는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펜스를 마속하게 했다.

보코하람 석방 여학생 82명 가족들과 재회

지난 2014년 나이제리아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여학생들이 2013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했다.



이달 초 보코하람으로부터 석방된 여학생 82명은 이날 나이제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가족들과 만났다. 2014년 4월 치북 지역에서 집단 납치된 지 3년이 만났다.

상봉은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여학생들은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리거나 환영의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다.

납치된 소녀 대다수는 기독교도다. 보코하람은 소녀들에 대한들과의 혼인을 강요했다. 일부 소녀들은 이들에 동화돼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몇몇은 자살 폭탄 테러로 희생됐다.

인니 아체주 동성커플, 85대 공개태형 선고

인도네시아 아체주(州) 경찰이 17일 동성애 혐의로 두 남성을 체포했다. 아체주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샤리아법을 근거로 85대의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아체주의 주도(州都)인 반다 아체(Banda Aceh)에서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지역사회 자경단에 의해 체포됐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침입해 이 두 남자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동성애 근거로 삼았다. 해당 비디오는 이미 지역 언론에서 공유된 상태다.

85대의 공개태형 선고를 받은 이 두 남자는 반다 아체에 있는 회교 사원 중 한 곳에서 공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주다. 샤리아법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주에서 샤리아법 시행을 허용했다. 아체특별자치구는 2년 전 동성

애에 태형 100대를 처할 수 있게 했고 샤리아법을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공개 태형 선고는 아체 주에서 2년 전 샤리아법을 강화한 이후 동성애가 처벌되는 첫 사례다.

미전문가 "北, 2년내 美 본토타격 능력 갖출 것"

워싱턴 포스트(WP)는 2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에 계속 맞서며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순방 도중에 발생한 북한의 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WP는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이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당국 및 전문가들의 추정을 전하면서 이 미사일의 성능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WP는 구체적으로 북극성 2형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미사일 전문가의 과거 분석 글을 소개했다.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 2월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에 올린 글에서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액체 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달리 북극성 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북극성 2형이 기동성과 생존성, 대응성 면에서 노동미사일과 비교하면 훨씬 고도화된 만큼 이를 탐지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워 국제안보국장은 이날 WP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진지한 외교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향후 2년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외교적 해법의 기회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강화를 촉구했다.

'탄핵위기' 낙스·클린턴·트럼프...사유는 모두 '사법방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증폭된 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메모'가 폭로되면서였다. 뉴욕타임스가 16일 이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란 쪽에 돈을 거는 사람이 급증했다. 영국 도박업체는 '트럼프 탄핵' 확률을 56%로 높여 잡았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법방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처했던 건 1974년 리처드 닉슨과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뿐이며 두 사람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법방해였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에 개입하고 휘방하는 행위. 미국은 이것을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미 메모'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코미가 이끄는 FBI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거대 의혹을 수사하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고, 메모에 그런 발언이 담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메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행위는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휘방하거나 지체시킨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힌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나자 FBI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분회의에 상정되자 닉슨은 서둘러 하야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7. 이 W. K.

레드랜드의 최초 한인 목회자는 이W.K.이다. 1910년 인구조사에 나오는 Won Kang Lee(이원양)가 그라면 그는 1886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1904년에 도미하였는데 기혼자로서 1910년 현재, 레드랜드에 있던 호텔 식당에서 빵을 굽는 제과사였다.

레드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 10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운전하면서 포모나를 지나고 남쪽에 리버사이드를 두고 계속 운전해가면 레드랜드가 나오는데 리버사이드와는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다. 노동주 선인 안석중이 1905년에 이미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인들이 늦어도 1905년부터 거주했을 것이다.

LA타임스 1910년 4월 26일자에 따르면 1910년 4월 25일 국민회 건물에 포함된 8개 건물이 소실되어 무려 5000불의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 자전거를 건지려다가 머리와 팔에 화상을 입는가 하면 뛰어들어 내리다 발목을 다치는 등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던 때까지 한인들은 레드랜드의 서쪽 끝에 모여 살았는데 현재 10번 하이웨이 북쪽이 된다.

선우학원에 따르면 당시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던 곳이 레드랜드였고, 약 30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5, 6명 정도, 나성에 약 1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증할 수 있는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족이 1907년에 이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6월 11일의 레드랜드 우체국 인장이 찍힌 엽서에는 '미국행 안창호 본집'이라 쓰고 Mrs. C. H. Aun P. O. Box 448 Redlands, Cal. USA라고 적혀있고, 1907년 6월 16일의 레드랜드 우체국 인장이 찍힌 엽서에는 '안

있다. 오렌지 스트리트 105번지(105 Orange street)에 사무소를 개설한 한인권업소 주인 오윤이 굴과 딸기 따는 일이 매삭 5, 6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한 달 급여가 곡상의 경우 30원에서 50원이고, 접시 닦는 일이 25원에서 35원이고, 스쿨 보이가 2원에서 3원50전이었다.

레드랜드제일감리교회 역사책에 따르면 한인들은 과일 따는 일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집일을 하기도 했다. 아직도 미국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탓인지 달러대신 원으로 센트 대신 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미국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

지키고 있었다.

유니온 한인교회

1907년에 발간된 레드랜드 전화번호부는 이W.K.를 유니온한인교회 Union Korean Mission 선교사로 소개하고 있다. 미션이라고 함은 예배 처소로서 교회가 되기 전 단계의 조직을 일컫지만 여기서의 일단 교회라고 쓰기로 한다.

그런데 선교사 이W.K.는 본 교회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의 전화번호부에서 '선교사'(missionary)

경우 당시 한인교회는 사진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교회이름을 유니온한인교회라고 했을까? 이 대답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상향장로교회에서 1908년 12월에 발간한 잡지 '대도'가 그 해답을 주고 있다. 그대로를 실는다.

고 있는 주한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사무엘 마켓 박사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방화중 전도사는 이미 이러한 곳을 방문하였는데 이때가 1906년이였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1907년 가을에 방화중 전도사를 한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중국인의 선교를 목적인 존 H. 라프린 목사가 지도하고 마켓 선교사가 안식년 기간만 방화중 전도사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위의 라프린 목사는 전 중국선교사였다. 바로 이 한인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라고 본다. 그리고 이W.K. 목사는 방화중 전도사가 지명한 평신도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인 레드랜드침례교회도 한인선교에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인교회 제일감리교회 100년사를 쓴 래지 비딕이 침례교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레드랜드로 유입되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인을 추방하였고, 이 후 일본인을 추방하였고 그리고 인도사람을 추방한 후가 된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특별히 침례교회가, 이들 다양한 인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노력을 통하여 접근하려고 노력했다."위의 미국인 제일감리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그 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가 조직됨으로써 확실하다.

유니온한인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우가 열심히 연조하여 각 색 경비를 담임하여 지낸다하니 과연 본받을 만한 교회더라"고 쓴 글에서 볼 수 있다. 유니온한인교회는 교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합하여 헌금을 하였고 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스스로 담당했다. 미국 교회가 조선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실시했고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두었던 삼자운동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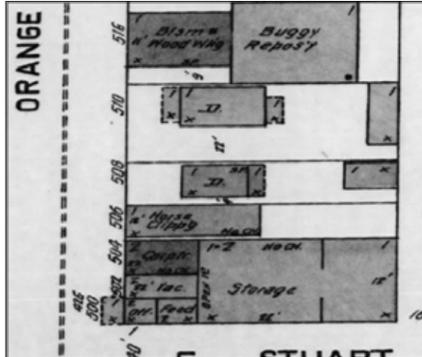
1906년에 촬영한 레드랜드 감리교 한인 예배처소의 30명의 한인들이 대부분 유니온한인교회의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중에 유니온한인교회 선교사였던 이W.K.도 있을 것이다.

과연 유니온한인교회는 얼마동안 지속되었을까?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가 1906년에 시작했다면 아마도 1년도 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W.K. 목사도 1년 이하 동안 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보인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교회지만 본 교회는 이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로 이어지고 한인장로교회로까지 계속 된다. 이W.K. 선교사는 1907년 레드랜드 전화번호부에 소개된 이후 그를 찾지 못한 것이다.

damien.sohn@gmail.com



안창호 본가에 보낸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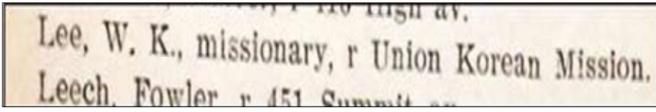


1908년 지도에는 유니온 한인교회가 있었던 오렌지 스트리트 510번지의 건물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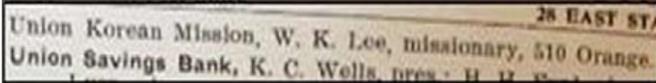


레드랜드 감리교 한인 예배처소, 1906년

로스앤젤레스 레드랜드 최초 한인 목회자로 방화중 전도사가 지명 1906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로 바뀐 유니온한인교회서 짧게 사역



W. K. Lee가 유니온한인교회 건물에서 거주하는 선교사라고 적혀 있다.



유니온한인교회의 목회자가 W.K. Lee인 것과 오렌지 스트리트 510번지에 위치해 있다고 적혀 있다.

창호 본가라고 쓰고 Mrs. H. L. Aun, P. O. Box 448 Redlands, Cal. U.S.A. 라고 적혀 있다. 이곳에는 1905년 12월경에 공립협회 레드랜드 지부가 설치되었으므로 상당한 한인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1906년 신한민보에 게재된 노동주 선인의 광고에서 당시 한인 노동현장의 경제를 쉽게 짐작할 수

1912년에는 한인 노동 주선소가 실베리아 스트리트 201번지(201 Sylveria Street)에 있었는데, 1917년에도 한인 장C.K.가 웨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314번지(314 W. State Street)에 한인노동주선소를 개설하고 이곳 레드랜드 한인촌을

다음에 나오는 '은'은 거주지 residence라는 의미이다.

1907년의 전화번호부가 1906년에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해야 함으로 유니온한인교회는 아무리 늦어도 1906년에 세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1908년 지도에는 유니온 한인교회가 있었던 오렌지 스트리트 510번지의 건물이 보인다.

유니온한인교회 예배당은 오렌지 스트리트 510번지에 세워지고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상점들이 몰려 있어 레드랜드 상업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유니온 길과 이스트 스트루아트 길이라는 사거리에서 거리표지판이 보이도록 넓게 사진을 한 장 찍을

"레드랜드에는 한인이 자유로 교회를 설립한 곳인데 열어 교우가 열심히 연조하여 각 색 경비를 담임하여 지낸다하니 과연 본받을 만한 교회더라."

위의 기사에서 유니온한인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레드랜드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자유로'교회를 설립하고 있다. 말하자면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함께 어우르는 교회 곧 유니온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로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장로회 총회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옐랜드, 리버사이드, 락 스프링, 레드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선교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안식년을 지나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됩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율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성경도 신앙 (32) 청교도의 결혼관(4)



이윤석 목사
(NY 브루클린 제일교회)

을 찾았고, 이상의 예화들과 제시를 위해 에스더, 룻기, 아가서를 찾았다. 밀턴(Milton)은 그들의 성경 탐구의 결실을 엄숙하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양성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의 사랑의 찬양적 기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선포한다.

8. 청교도 부부 생활의 모습

부부가 된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아내가 제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은 부부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청교도 로버트 볼튼(Robert Bolton)은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와 같이 보답하라"고 가르쳤다. 볼튼은 이어서 "영혼에게는 성이 없다. 아내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인 것처럼 동등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선함을 나타내도록 하라. 다만 아내

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증거로서 복음의 성례들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내를 묘사했다: "아내가 먼 지방에 있는 남편의 편지들을 읽을 때, 그녀는 남편이 사랑하고 있다는 많은 달콤한 암시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매일 자주 읽을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들 속에서 멀리 떨어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을 볼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가 편지의 이 구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계속

4) 주님 사랑과 동등한 부부사랑의 표현
청교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인간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양육하고 빛나게 하지 않을 동안에만 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분명히 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열렬하고 강해야 한다고 기대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그들은 비록 자제는 하였으나 억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배우

2) 하나님 사랑과 같은 부부사랑의 표현
청교도들은 결합한 사랑이 매우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다니엘 로저스(Daniel Rogers)가 묘사한 것과 같은 구절들을 볼 때 명백하다. "결혼의 사랑은 종종 아무런 알 수 있는 원인 없이 한 편의 마음을 다른 편에게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강한 천연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길 때 더 이상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천국에서 이루어졌

배우자는 불변의 기초에 근거해 확고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결단이 중요 결혼관계 이해를 성경에서 찾아... 진정한 사랑의 명백한 표현, 인내 필요

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Daniel Rogers, Matrimonial Honor, 1642).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결혼은 사랑에 폭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저스는 이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청교도들이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애정은 모든 경우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지금 당장에 상태를 분명히 사랑하는 자이나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배우자의 눈에 그런 사람은 비록 발견된다 하더라도 생의 동반자로 적절한 후보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불변의 기초에 근거하여 확고한 애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사랑의 행동들은 이 애정을 무르익게 하고 깊게 할 것이며 따뜻한 부부간의 사랑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구속(敎贖)적인 사랑의 비유로서의 표현
뉴잉글랜드로 간 캠브리지의 청교도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자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예증하고자 하여 자신의 설교에 이 따뜻한 부부간의 사랑을 묘사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녀는 남편이 지금 있지 않지만 필적 가운데 잠이라도 함께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 편지들만을 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은 곧 주님의 사랑의 편지들인 것이다.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남편을 묘사한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 있는 남자는 밤에는 그녀의 꿈을 꾸고 잠이 깰 때는 그녀의 눈과 생각에 그녀가 있고, 식탁에 앉을 때에도 그녀를 명상하고, 여행할 때에도 그녀와 동행하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녀와 이야기 한다"(토마스 후커, "구속(敎贖)의 적용", 1659).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보다 더욱 사랑할 때,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존경의 표현들로 나타난다. 곧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그녀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 사용된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고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맡겨 있어 그는 자신의 애정의 물결이 강한 해류와 같이 격렬하게 넘쳐흐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토마스 후커,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언급, 1656).

자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윌리엄 구즈(William Gouge)는 다음과 같이 책망한다: "뜨거운 애정이나 애정의 마음이 없는 남편들의 성벽은 절대로 말씀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전혀 애정이 없는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며, 또한 그들은 아내가 즐거워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내를 생가위하는 것은 결혼 상황에 관련된 특권이기 때문이다"(윌리엄 구즈, "가정의 의미에 대해", 1634).
5) 부부의 성경적인 사랑 표현의 유익
에드먼드 몰간(Edmund Morgan)의 말과 같이 "청교도는 억지로 절제를 빼는 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웃는 법을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들 부부애정에 대한 긍정적 현실주의는 그들이 결혼관계의 이해를 위해 성경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들은 결혼의 제정을 알기 위해 창세기를 찾았고 결혼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 에베소서 찾았고, 결혼의 위생학을 알기 위해 레위기 찾았고, 결혼의 관리를 위해 잠언을 찾았고, 결혼의 윤리를 알기 위해 몇몇 신약 성경

의 영혼이 연약한 육체에 의해 약해지고 무력해지는데, 주께서 그러한 약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더 편리하고 편안한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감성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교도 사상가들은 배우자의 간음이 있었을 때 재혼의 권리를 수반하는 이혼이 성경적으로 허용되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남녀가 동등한 관리로서 동일하게 실제적인 결혼 관계 파기의 모든 행위들은 '악의적인 유기', '부부가 서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 '학대', '질병', 그리고 '정신이 상'이다.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교회나 민사 재판에 의해 결코 규정될 수 없는 간음과 같은 고의적 유기를 제외한 무엇도 결혼의 결속을 해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간음죄까지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17세기의 서정에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백의 고혈압

병원만 가면 높아지는 혈압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 오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실제로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더라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또 누구나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자신의 혈압이 높지 않을까 하며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도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40대 중반의 남성 정 모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다. 가끔 집 주변 상가에서 기계로 혈압을 재보지만 항상 정상이었다. 정 씨의 가족은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고혈압을 앓았고 누나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검진해보니 혈압은 160/100mmHg으로 높았다. 다시 측정해도 155/100mmHg였다. 혈압이 높긴 하지만 처음 병원에 와서 혈압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2주 후에 병원에서 다시 혈압을 재기로 했다. 혈압계를 산 정씨는 2주 동안 집에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평균 혈압은 130/90mmHg이었다. 2주 후 다시 병원에 온 정씨의 혈압은 160/100mmHg으로 여전히 높았다. 정씨는 왜 병원에만 오면 자신의 혈압이 높아지는지 궁금했다.

백의(白衣)고혈압(White Coat Hypertension)이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만 가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사 앞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스트레스나 긴장은 혈중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이는 혈관의 저항성과 심장박출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린다.
과거에는 백의 고혈압을 정상으로 보고 치료하지 않았지만 많은 임상연구 결과 백의 고혈압도 일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중풍이나 심장 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대부분은 수년 안에 일반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백의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자. 혈압 측정 전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두 번 정도 측정해서 측정된 평균을 기록하고 딱 조이는 옷을 입고 혈압을 재는 것을 피하고 혈압계는 심장 높이에 두며 식사나 운동 직후, 또는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다음에는 혈압 측정을 피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적당한 실내온도에서 측정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익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연합감리교한인총회 긴급 총회

연합감리교한인총회(KUMC, 총회장 김광태 목사) 긴급 총회가 6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광태 목사)에서 '한인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총회는 동성에 관련 교단내 한인교회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847)541-9538

제 2차 할렐루야 준비기도회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6월 1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후리신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제 2차 할렐루야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2017 할렐루야대회는 7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성진 목사(일산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문의: (718)279-1414

북미원주민 단기선교 참가자 모집

뉴욕교회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하고 북미원주민선교회가 주최하는 북미원주민 단기선교에 참가할 단원들을 모집한다. 선교지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으로 7월 30일(주)부터 8월 5일(토)까지. 훈련은 6월 4일(주) 오후 6시부터 6주간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장소는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 참가비는 450달러(둘째부터는 350달러). 접수 마감은 7월 30일.

▲문의: (646)763-4211(김기호 목사), (917)648-6659(Pastor Sam Lee)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가 6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린다. 세미나 내용은 재정설계, 주택, 복지혜택, 의료보험 등 은퇴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516)232-3705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

뉴욕교회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하고 미주전제모(천국의제자들)가 주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가 6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관 목사.

▲문의: (551)655-4224, (718)986-7731, (310)408-1858

뉴욕어린이양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뉴욕어린이양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5월 28일(주) 저녁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임직은 안수집사(서현찬, 안현준, 한승진), 명예안수집사(황규홍), 협동안수집사(김태영), 권사(남선희, 안종옥).

▲문의: (718)899-8309

사역자 청빙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 or more)와 EM사역자(Part-time or more)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종언어를 사용하고 신학교 재학 중으로 간단한 이력서와 신앙 간증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goceman86@gmail.com

전은주 전도사 찬양집회

'어노인팅' 전은주 전도사 찬양집회가 오는 9일(금) 저녁 8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9-9191

자선음악회 "Song & Story"

멕시코선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Song & Story"가 6월 11일(주) 저녁 6시30분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크리스티나 러브 리와 친구들이 출연한다. 티켓은 10달러.

▲문의: (718)704-3737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강사 황의영 목사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가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심령이가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에서 황의영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첫날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이경남 전도사의 기도 후 정기태 목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엡4: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사 황의영 목사(SBM총재)는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에코(ECHO)웨이 학습원리에 대해 강의했다. 이 학습원리는 SBM과 효율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창안된 것으로 최근 증보판이 출간됐다.

SBM은 SON(Serving Our Neighbor, 막10:45) BAL(Biblically Applied Life, 빌1:27, 요일3:8) Movement의 약자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다.

실천 강령으로 ①신앙생활의 이원화현상을 없앤다 ②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한다 ③크리스천의 품성을 개발한다 ④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낸다 ⑤봉사정신을 살린다 ⑥생활개혁에 앞장선다 ⑦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는 7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세미나 참석자들과 강사 황의영 목사(앞줄 가운데)가 강의 후 기념촬영했다.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비전을 품고 큰 사역의 길로 나아가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교회교육을 위한 실천신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그 과정을 걸어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에코웨이 학습원리에 앞서 "파블로브의 자극(S-R)반응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돈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이루지만 기독교교육을 위한 학습이론은 알려진 것이 없다"며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소개했다.

동교교육을 위한 학습이론은 알려진 것이 없다"며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소개했다.



뉴욕목사회 주최 목회 코칭' 세미나에서 강사 김종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담임목사 관심 따라 교회성장.."

뉴욕목사회 '목회코칭' 세미나, 강사 김종석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성경적 교회성장 프로젝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코칭' 세미나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김종석 목사(교회비전연구원, 한국교회코칭&컨설팅 대표)를 강사로 개최됐다.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첫날 구약부흥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중보기도와 새가족 정착, 전도+양육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날 김종석 목사는 △중보기도에 대해 중보기도는 누가 하나? 중보기도사역에서 중요한 3가지 (①반드시 교회와 담임목사 중심 ②영적 교만 주의 ③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기)를 강조하고 중보기도사

역 전략으로 ①세분화와 전문화 ②중보기도사의 자기관리 ③전도사역으로의 연결을 설명했다.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는 ①새가족 모임의 형태 진단 ②새가족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도 진단 ③새가족 사역부의 역할 진단 ④새가족실의 진단 ⑤새가족 정착의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오후에는 전도+양육에 대해 ①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야 한다 ②시대별 전도의 유형과 부흥의 파도 ③뿌렸다 전도의 보완할 점 ④양육의 과정 ⑤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양육 원리 ⑥전도+양육의 시스템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 49차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49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 49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뉴욕초대교회(김승희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정덕상 장로 인도로 반주 손옥아 권사, 기도 이보춘 장로, 설교 김승희 목사, 특별기도, 헌금 특송 손성대 장로 색스폰 연주, 헌금기도 백달영 장로, 다민족선교대회 준비 현황보고 황규복 장로, 회장 인사, 광고 사회자, 축도 김승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본문으로 "영적탈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는 남후남 장로가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박용기 장로가 "초대교회를 축복하소서", 장석면 장로가 "김명신 장로님의 건강회복과 장로연합회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제목으로 뜨겁게 통성기도 후 마침기도를 했다.

이어서 김영호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6월 조찬기도회는 15일(목) 오전 8시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나눔의집이 플라싱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이길홍 목사, 박성원 목사, 양민석 목사.

뉴욕나눔의집 퀸즈 플라싱에 새 보금자리 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 침구 등 후원 기다려

뉴욕일원 한인 노숙인 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퀸즈 플라싱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뉴욕나눔의집은 5월 22일 플라싱의 한 가정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노숙인 쉼터 개관을 알렸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 방 4개와 주방, 화장실 2개, 다락방 등의 구조로, 한인 노숙인들이 편하게 쉬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5명이 거주 중이며, 새 쉼터에는 1층에 4명, 2층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욕나눔의 집은 당분간 매달 렌트비 마련을 위해 2층의 방 2개는 일반인에게 렌트를 주고 1천1백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월 렌트가 4천2백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매달 3천 달러의 재정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지난 약 5년 간 상업용 건물을 이용해 15명 가량의 노숙인이 지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새 보금자리를 찾던 중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게 됐다"며 "노숙인들이 편히 쉬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특히 이사를 막 끝내서 건물만 있을 뿐 침대와 침구 등 생활용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후원을 호소했다.

이날 뉴욕그레이크비교회(담임 양민석 목사)는 나눔의집에 5천 달러를 후원했다. 양민석 목사는 "새롭게 문을 연 나눔의집이 노숙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글로벌뉴욕여목연이 주최한 어머니기도회 오전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와 함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파워 프레이징', '파워 프리칭' 글로벌뉴욕여목연 일일세미나 및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하는 일일 세미나 및 어머니기도회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강사로 김진석 목사가 '파워 프레이징'에 대해, 박재환 목사가 '파워 프리칭'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가 강사를 소개하고 기도 후 김진석 목사

가 "최고의 찬양을 위한 세미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헤어림 찬양 워십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관점으로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위한 방법"이라며 '헤어림(Hear-I'M)이란 예배자의 심정을 살펴 알아주는 것 △영원이 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역지사지의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마음 △은혜의 선물에 관계된 것 △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부심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롬12:3) △그리스도의 총만한 장성한 분량이 총만한 것(엡4:13) △시체의 연약하고 상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목사는 헤어림 찬양과 예배에 대한 이해로 △예배 기획 △예배흐름 그래프 △예배의 깊이 △예배인도의 실제 △예배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석 목사(큰샘교회 설교)는 1987년 찬미선교단 창립 목사로 헤어림 워십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오찬 후 1시30분부터 세미나를 인도한 박재환 목사(주님의숲교회 담임)는 한국파워프리칭 대표, 숲속지역아동센터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저서, 청중을 변화시키는 능력설교 "파워프리칭"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당신의 자녀와 가정은 마약으로부터...?”

LA기운실 마약방지세미나



LA기운실 주최 LA세리프와 함께하는 마약예방 및 방지세미나가 캘리포니아 국제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동을 발견하는 방법, 마약의 중독의 무서움, 마약에 대한 법적인 대처,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적극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녀들이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경험이 학교, 지역, 그리고 교회의 친구나 선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설

명하고 마약으로 학업과 직장, 그리고 신앙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리화나에 대한 설명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으로 들어가는 입문과정을 하는 것이며 마리화나를 농축한 것이 해시오일이며 15세 이전에 마리화나를 피운 성인 중 62%는 코카인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헤로인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비치료용으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의 발생률이 떨어지는 추세지만 음주운전자 중 마리화나 흡연이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운전자중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음주운전자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은 약국에서 파는 액체 감기약을 소프트드링크와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프트드링크와 섞여진 감기약은 화학반응으로 인해 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온 LA기운실(대표 박문규 박사)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를 캘리포니아 국제대학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동양선교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 이임예배에서 박 목사가 이임사를 하기로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이임예배

동양선교교회(OMC) 박형은 담임목사 이임예배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박형은 목사는 이임사에서 “6년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지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며 “교회가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필요한 분들 보내주셔서 격려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통해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 아들이 관장이라는 질문한다다가 위로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OMC에서 시무하는 동안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이었는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보니 원로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편안히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축복하며 가시는 모습을 그 무엇보다 기쁘고 보람된 것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었다. 앞으로도 고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힘이 되고 격려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OMC가 One More Chance라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어디까지 동양선교교회가 자라날지가 될 것이

다.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50주년 때는 OMC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들이 모두 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중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임예배는 김범수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는 후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딤후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연합관 장로가 박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성원 목사(알라스카 OMC원로, OMC협동)와 조주아임 전도사(OMC패밀리 체플)가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형은 목사가 가족소개와 인사를 했으며 이임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많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서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고 취임식에 대해서도 성대하게 치루지만 담임목사 사임에 대한 절차는 소홀하고 있다. 이임예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이날 OMC에서 열린 박형은 목사 이임예배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사임에 대한 실제적 모델로 목회자와 교회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기념 봄 말씀잔치에서 강사로 나선 정필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 설립기념 봄 말씀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강사 정필도 목사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기념 봄 말씀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21일 오전 11시에 김경진 목사 집례로 열린 집회에서 정필도 목사는 “가장 좋은 교회는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유명한사람 많고 돈도 많고 그런 게 아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이 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믿음이 좋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산 믿음 가진 교회가 되면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이 은혜 받아 믿음이 자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고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이다. 넷째,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운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이고 100%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157차 소망교육세미나가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에서 열렸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그리스미션대 비즈니스전문인 선교포럼

그리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비즈니스전문인 선교포럼을 오는 6월 9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 장소는 본교 그리스 라이브러리 GL1 세미나룸(201 S. BASQUE AVE, FULLERTON, CA)이며 포럼은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사업가, 전문인, 비영리 단체 관계자 등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의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의 주제 발표는 본교 제임스구 교수가 발표하며, 방콕은혜 CDP(Child Development Program) 사역은 이상수 선교사, SWIM(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 사역은 임영호 선교사, 몽골과 터키 교회개혁 사역은 이에 레미야 선교사의 사례 발표와 GMU MAICS 과정 학생들의 비즈니스 선교 전략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714)393-4595

연합감리교회 교차 파송

구진모 목사 언약교회, 오경환 목사 시온교회로

시온연합감리교회를 11년 동안 사역해 온 구진모 목사가 오는 7월 1일부로 LA동부지역에 있는 언약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된다. 한편 현재 언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경환 목사는 시온교회로 교차 파송될 예정이다.

연합감리교회 가주태평양연회 소속인 이들은 그랜트 하기와 주재감독의 이 같은 파송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동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는 구진모 목사(사진 왼쪽)를 언약교회로, 오경환 목사(사진 오른쪽)를 시온교회로 교차 파송했다

(정라: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 방문

소망소사이어티 157차 소망교육세미나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제 157차 소망교육세미나를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에서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소망교육세미나는 소망개어교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나와 뇌를 자극하는 손운동으로 시작했고,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죽음준비 상황극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통보하게 됐을 때 대처하는 가족들의 상황을 연출하며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후 김미혜 사무국장이 사전의 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의료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꼭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마무리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성영락교회에서는 후원금으로 소망의 사역에 동참하며 격려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3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3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주일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복음(월-금): 오전 5:30 월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20 영어권(왕스.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ena, CA 90248 www.dh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복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9079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15 주일예배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러예배: 오후 1:30(수-금),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dhpc.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St., #8 L.A., CA 90006	엘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cn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원로이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령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l.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310)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예배: 오후 7:30 목요일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www.socalssunshin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ier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정오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icor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정오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pc.org Tel: 310-370-559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하성 서대문, 여의도순복음과 통합 결의

기하성 서대문·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 개막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이 22일 서울 은평구 순복음교회(유재호 목사)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통합을 결의했다.

이날 인천순복음교회(최용호 목사)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막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도 23일 서대문과 통합을 결의할 방침이어서 2008년 분열이 시작된 후 9년 만에 교단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하성 서대문은 교단 통합을 위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합회'를 구성하고 '통합 헌법'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인신총회장과 박광수 재단법인 기하성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또 금권 선거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임원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목회 25년차 이상 목회자 중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이들 중 3명

을 투표로 뽑은 뒤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이다.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 권한대행인 정동균(서울남부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정 목사는 지난 2월 재단법인 개혁 문제로 기하성 서대문과 광화문으로 분열된 후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으며 이번엔 단독 출마했다.

부총회장에는 박지호(서울 인성순복음교회) 목사와 송수용(전주순복음경동교회) 장로, 총무에는 송시용(서울 성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선임됐다. 모두 단독 후보였다.

정 신인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개 교회 목회자가 행복할 교단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매일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어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목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도·농 간 상생, 미래를 위한 목회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의 순

조로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성 광화문도 이날 부산 해운대매일순복음교회(경정철 목사)에서 제66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장에 함동근(서울 순복음한성교회) 목사, 해외선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선교총회장에 정경철, 부총회장에 홍영준(광주 순복음진월교회), 총무에 강현식(영택순복음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이날 오후 5시에 총회를 개막하고 개회예배를 드렸다. 임원 선거 및 각종 결의는 23일 진행된다. 예배에선 제1부총회장 이태근 목사가 사회를 보고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하나 됨의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여성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했다.

동성애문화 맞서 '세계가정축제' 연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 세계적 반동성애 석학 초청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국제대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에 맞서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6월 2-4일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대회는 국제적으로 동성애 문화를 저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최초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은 크게 '생명 가정 효 콘퍼런스'와 '세계 가정 축제'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동성애 확산 저지에 앞장서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주 강사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 출신인 피터 존스 트루스의 기조발제를 열고, 브랜트 맥버니 미국 장문화에 맞서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6월 2-4일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대회는 국제적으로 동성애 문화를 저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최초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은 크게 '생명 가정 효 콘퍼런스'와 '세계 가정 축제'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한동협 국제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0여개국에 불과하며 오히려 동성애를 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80여개국이나 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건전한 생명문화를 해치는 동성애의 물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협은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위임을 받아 설립된 단체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

예성 제96회 총회, 총회장 김원교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는 22일 경기도 안양시 성결대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원교(63·부천 참중은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윤기순(서울 구로중앙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최승덕(서울 꿈들이루는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 518명의 총대들은 김 목사를 만장일치로 총회장에 선출했다. 서기에는 박종원(청주 양무리교회) 목사, 회계에는 박근주(서울 동인교회) 장로, 부회계에는 이천(서울 신수동교회) 장로가 선임됐다.

복수후보가 출마했던 부서기에는 최상현(부천 행복한국교회) 목사, 회의록서기에는 이상문(서울 두란노

교회) 목사가 각각 당선됐다.

김 신인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예성 공동체가 다시 복음 앞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개운동을 추진하겠다"면서 "111년 교단 역사를 정리하고 42년 선교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선교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다음세대 교육의무금'을 신설하겠다"면서 "어렵고 힘든 낙도교회,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윤 부총회장은 "선교사의 재교육, 평생교육에 힘쓰고 지방회 별로 교회개혁을 위한 전도 콘퍼런스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예배에서 이동성 전 예성 총회장은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전 총회장은 "교회와 사회, 국가의 변화는 우리가 앞장서 교단현장과 헌법을 잘 지키며 말씀운동 성령운동 연합운동에 주력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대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말씀회복 성령운동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참가기도를 드린 후 성찬식을 가졌다. 예성은 95년기 사업국 교육국 전도국 등 총회 6개 부서의 총수입이 16억1365만원이라고 밝혔다.

교단은 23일 '선교 111년차대회'를 개최하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통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성결한 문화를 전하겠다"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날 총회에서 같은 성결교 신학을 공유하며 한국성결교회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여성삼 총회장과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의 김영수 감독이 축사를 했다. 총회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장학금 좀 주세요, 네?"

신학대생들 경제적 형편 더 어렵다

장로회신학대와 총신대, 감리교신학대 등 국내 신학대생들의 경제적 형편이 일반대생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 10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신학대가 재정적 취약 계층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수한 '21개 신학대(하단 명단 참조) 재학생 2016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학생 3만 8000여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다. 정부 공식 통계로 주요 신학대생들의 소득 수준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21개 신학대생 70%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 가정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파악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학생가정을 11개 계층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월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토지 등 재산, 부채 자료를 통해 '월 소득 인적액'을 산출하는데, 2016년 1학기 기준 9분위 기준은 월 893만 원 초과, 10분위 기준은 1170만원 초과였다. 9·10분위(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학과가 있거나 국내 주요 교단을 배경에 둔 21개 신학대 재학생 3만8032명 가운데 지난해 1학

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만6585명(69.9%)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1분위(차상위 계층 포함), 2분위 그룹 재학생은 10명 중 3명 꼴(30.5%)이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9·10분위에 속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한 이들은 10명에 1명 정도(11%)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9분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7월 국가장학금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전국의 180여 대학 재학생 224만 여명의 국가장학금 신청율은 평균 64.2%였다. 21개 신학대생의 신청율보다 5.7%포인트 낮다. 신청자 중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고소득층(9·10분위)의 비율은 22.2%로 신학대 평균(11%)의 배에 달했다.

중소 신학대생 형편 더 열악해 주요 교단을 배경으로 한 6개 신학대(장신·총신·감신·서울신학·한세·침신대) 재학생들의 경우, 일반대생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했다. 이들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4명 중 3명 정도(74%)였고, 저소득층 비율은 34.8%를 차지했다.

21개 신학대 가운데 1000명 미만의 재학생을 둔 감신대 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칼빈대 등 중소 신학대 11곳의 국가장학금 신청율

도 75.4%로 높았다. 저소득층 비율은 44.9%로 치솟은 반면 고소득층 비율은 5.4%로 가장 낮았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소득 분위별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신학대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학대생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필가. 서울 지역 A신학대 학생처 관계자는 "신학대들의 경우, 목회자 자녀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하위,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지역의 B신학대 관계자는 "장학금 재원이 부족한 중소 신학대들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부터 신청하라고 독려한다"면서 "신학대들의 취약한 재정도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1개 신학대 명단(가나다순)= 감리교신학대 고신대 나사렛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성공회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성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스키워드/국가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급되는 장학금이 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덜한 소득 상위 20%(9·10분위)는 제외된다.

고 스마트폰 실전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루(1)에 한 번(1) 한 시간(1) 식사시간, 일주일(1)에 한 번(1) 한 시간(1) 예배시간 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자는 '111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동현 본부장은 "일하삼견이라는 슬로건하며 111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핏줄을 잘 지켜야 하고 '한국교회의 핏줄을 잘 지켜야'고 말했다.

젊음의 거리 흥대 일대서 기독교 공연 잇따라

'문화 소통' 으로 공감 활짝

'젊음과 문화의 상징' 서울 흥대 일대에서 기독교 공연들이 잇따라 열린다.

2017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수상페)은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65에서 펼쳐진다. 수상페는 '세상에 기독교 예배 문화의 꽃을 피우자'를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열리는 기독교 문화축제다. 흥대 앞 '수상한 거리'는 창조적인 도시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우가는 모험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카페, 연구소가 소통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실제 거리 네트워크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수상한 거리에 있는 스테이라운지, 카페 피카소, CCM아지트 등에서 김명식 강명식 함부영 장종택 등 CCM 사역자들의 찬양과 성극팀 카

르디아의 연극, 재즈 공연들을 볼 수 있다. CCM아지트 대표 김정수 목사는 "수상페에 오면 자유와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한눈에 경험하며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19회 양화진음악회 장필순 콘서트는 25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의 국민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가 주최하고 서울 마포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에선 기타리스트 함춘호, '더클래식'의 멤버인 키보드리스트 박용준 등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장필순은 '보헤미안'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어느새' '제비꽃' '그대로 있어주면 돼'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제14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목회자 배진기, 교육자 말테리노, 선교사 장한업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이 5월 25일 오후 1시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이사장 안준배목사, 대표회장 이수형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목사)는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제14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최하며 목회자부문 배진기목사(포항안디옥교회 당회장), 교육자부문 말테리노 교수(루터대학교 교수), 선교사부문 장한업목사(타이페이순복음교회 담임)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메달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배진기 목사는 포항안디옥교회를 개척해 2000여 성도를 이루었고 34년간 시무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교회연

합회 회장,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을 주도했다.

교육자부문 수상자 말테리노 교수는 루터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로 루터의 개혁신학을 전수하고 있다. 독일 기독교 바이에른주 루터회 선교회의 파송으로 기독교 한국루터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한국루터회 교회개발원 원장을 맡아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6 한국기독교복음화 연합회 독일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과 한국교회에 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해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등 히트곡을 부른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양화진음악회를 열고 있다.

필통콘서트는 다음 달 8일부터 흥대 인근 CCM아지트에서 펼쳐진다. 김관용 김소영 리트 엘라인 김지은 김브라이언 등 찬양사역자와 CCM라브 라이미션 FTC코리아 MCNK 등 선교단체가 연합해 진행하는 콘서트다. 7월 7일까지 모두 10차례 공연한다. '나눔과 선교로 통(通)하는' 필통콘서트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인 마추공동체, 비영리단체 더나눔사랑플러스, 필통과 학용품으로 제3세계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필통미니스트리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필통미니스트리의 김정환 목사는 "문화의 거리 흥대에서 음악으로 나눔과 선교를 이야기하려 한다. 서로 공감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사부문 수상자 장한업 목사는 타이페이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아 26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대만 11개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대만순복음영산신학원을 설립해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 교회 개척과 부흥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아시아성도방향성회를 매년 개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이 한국 오산리최자실기기념식기도원에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성도방향성회를 통한 중화 디아스포라 선교연구'에 대한 논문을 써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교량역할을 감당해 중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길선주 사를 통해 발원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교도소 선교칼럼 (22)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외로움을 치유 받은 사람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분노와 그들의 거부감 때문에 재소자들은 더욱 외로워합니다. 게다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다시피 되어 누구 하나 찾아와 주는 사람 없이 지내는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1년에 편지 한 장조차도 받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한군데도 없는 고아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로움까지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롭다가도 슬퍼하는 재소자들을 상담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목격하기에 저는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깊은 사랑은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예로 한 여제소자, 그녀의 신앙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아가 신앙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15년간을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며 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너무나 외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1년전부터는 외로움이 더욱 심해져서 어찌할

의 치유를 체험하도록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니나가 다시 신앙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에는 눈물을 쏟으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던 그녀가 이번에는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외로움을 치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라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었다고 하며 외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며 시며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교도소를 떠나기 전 자신의 간증을 써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은 "회개 5년,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에 실려서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를 통해서 출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출감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섬길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그녀가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외로움에 슬퍼하며 행복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와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소홀해지면 다시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가에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교도소 사역. 저를 이 사역에 불러주셔서 그러한 기적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3)
yonghui.mcdonald@gmail.com

알아두면 좋은 미국의 결혼식 절차 (1)

[편집자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인가 받은 한미기독교사회(대표 유용호 목사/법무사)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의 결혼절차(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등)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윈스탑 서비스로 성실하게 대행하고 있다며 다음 내용을 보내왔다. 업데이트된 내용 확인은 [http://www.LAvote.net / LARecorder.net](http://www.LAvote.net/LARecorder.net)을 참조하면 된다.



유용호 목사

LA카운티 결혼 라이선스는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라이선스는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새 라이선스를 신청 구매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의해 결혼식을 행할 권리가 주어진 사람에게 의해서 예식이 치러져야 합니다. 목사, 신부, 승려, 재판관, 카운티클릭서 등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 클락(Clerk)은 예약해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이행해주시고 합니다. 해당 카운티 클락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식이 치러지면 주례자는 10일 이내에 결혼신청서에 사인을 한 후 카운티 Clerk 또는 Recorder Office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결혼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 & Certificate)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과정이 다 끝나고 정식으로 원서를 제출해서 Certified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라이선스 비용은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6-8주 기다릴 필요 없이 본 기독교사회에서 발행하는 법적인 Marriage License & Certificate Copy 서류로 결혼영주권을 즉시 신청하시면 시간이 8주 정도 절약됩니다.

■ 한미기독교사회를 통한 결혼증명서 발행 (Confidential License & Certificate of Marriage)

한미기독교사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결혼증명서 발행 및 결혼영주권 신청을 완벽하게 고객들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공인법무사, 이민컨설턴트, 공인공증인 및 범법집행관 자격과 결혼증명서 발행에 꼭 필요한 목회자 및 Authorizes Notary와 통역사 등을 준비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떠한 절차를 밟고 결혼을 하는지, 혹은 단순히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혹은 오래 거주하신 영주권자, 유학생들, 혹은 서류 비이자 등등 각계각층의 분들입니다. 우선 혼인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제한, 혹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지, 안하느냐의 차이는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혼인을 하는 절차는 모든 주가 거의 같습니다. 결혼경비를 절약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혼할 당사자들이 사전

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결혼장소 해당 관할 시청(City Hall, Court 또는 County Office)에 직접 출두해 결혼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소정 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혼 면허증(Marriage License)을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증 발급 후 정해진 기간 내(보통 30-90일,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혼인식"의 의미는 주례자 앞에서 부부로서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교계 지도자(안수 받은 목사, 신부 승려 혹은 Levi, Rector 등)가 의식을 행합니다.

무종교인인 경우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보통 은퇴한 판사들 혹은 카운티의 커미셔너(Commissioner)들로 하여금 부부서약을 소정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상 결혼면허증을 발급하는 같은 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서약 후 주례인, 결혼 당사자 내지 증인은 결혼면허증에 정해진 난에 서명을 합니다. 그 후 주례자, 혹은 결혼당사자는 (주마다 다름, CA에서는 주례자가) 그 결혼증명서를 (결혼면허증은 서약 후 결혼증명서로 변경됨) 관할카운티로 결혼한 일자 10일 이내로 우편 우송, 혹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결혼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결혼서약 후 어디로 접수하는지 주소가 찍힌 우송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한국식으로 말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우편우송이든 직접접수든 원본과 틀림없는 결혼증명서 사본(certified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신청을 동시에 한, 두 장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별도로 신청하면 시간소요가 2-3배 걸립니다. 동시에 하면 6-8주 후면 집으로 도착하고 1장 신청 수수료가 주마다 다르나 보통 10달러 내지 20달러 선입니다(LA카운티 경우는 15달러).

두 번째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은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한미기독교사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은 미리 전화만 하면(213-345-7849 혹은 702-222-0691) 결혼면허증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결혼증명서 발행, 주례 등 완벽하고 저렴하게 대행해줍니다. 흔히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은 네바다 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으나 그곳은 보통 24시간 오픈하는 곳이 많을 뿐, 본 한미기독교사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족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 문의: (213) 343-7849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h3>갈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h3>벅스카운티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궁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h3>벤앨교회</h3>  <p>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h3>보스턴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권, 무연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h3>샬럿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권, 무연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시애틀평강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h3>안다루교회</h3>  <p>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h3>알칸사 제자들교회</h3>  <p>담임목사: 전관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8:00(월-토)</p> <p>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p>	<h3>앵커리지벨리문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h3>엘파소열리문교회</h3>  <p>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h3>영생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킬린노리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h3>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3>주예수교회</h3>  <p>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효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h3>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shalom의 교육학(21)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사범 대학교 교수)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지난 20회에 걸쳐 교육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교회 교육의 방법론을 살롬 교육학 모델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교사 교육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는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모두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책임을 자각하는 의도로 글을 썼으며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울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주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고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백성들과 큰 무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슬퍼하며 따랐는데 그때 주님이 돌아서서 그 여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눅23:28). 왜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다음세대에 대한 희망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신명기 5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언약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뱃속 깊이 깨달았다면 찢고 풀이 흐르는 땅을 잃고 포도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 역시 정신 차려서 우리의 후손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고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이다. 믿음이 없이 자라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입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슴 치며 울어야 한다.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

해 눈물 흘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7장 9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알고 따르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지은 예수 전도단 상담학 교수인 부르스 탐스 박사는 부모와 교사가 자

가르침 그리고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의 결과 속의 다름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절규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차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소망을 보여 주도록 하자. 성경은 눈물로 뿌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어 놓은 야구장에 오게 되고 이어서 8명의 선수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의 아버지인 존 킨셀라도 야구장에 오게 된다. 필자가 기억하는 것은 아들(레이)과 아버지(존) 사이의 대화이다. 존은 이곳이 천국이냐고 물어보자, 레이가 여긴 아이오와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존이 말한다. “여기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레이가 묻는다. “천국은 어떤 곳이지요?” 존이 답한다. “꿈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지...(oh yeah. It's the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천국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곳이다. 그런 곳이 있을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강하게 흐르는 곳,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살롬 공동체의 평안이 넘쳐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며 학교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랬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 평강이 넘치는 이곳에

와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칠 때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건설해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확신한다.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법!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의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녀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미래의 이 사회를 계속 이어가는 귀한 역사적 존재임을 잊어서 안된다. 이 세대는 가도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 것은 바로 차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저절로 자라나다고 기대하지 말라.

성경은 자녀교육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하심이 자녀들에게 흘려가게 하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제언: 부모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으니 자신은 어린 양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양만큼 부족한 동물도 없다. 양은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못하며 방향 감각이 없어 쉽게 길을 잃는 동물이다. 이빨은 약하여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으며, 다리는 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속도도 느려 잘 도망가지 못하여 쉽게 사나운 동물의 표적이 되곤 한다. 이러한 양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목자는 양의 어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까? 목자는 양의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목자는 안전을 보장한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는 생명을 지켜주며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 양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에서 멀어지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늘 보호한다. 푸른 초장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은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런 목자의 역할이다. 자녀의 먹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자녀를 늘 먹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세상의 두려움, 악,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곧 평화의 시간이며, 기쁨의 시간이며 행복의 시간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선한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선한 길이란 곧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길이요, 복음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 생활 자세와 습관을 의미한다. 부모는 이런 가치와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hlee0414@gmail.com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는 데 전력 다해야 방향 재점검, 살롬교육방법론으로 교육 목표, 방법, 내용, 평가 새롭게 부모는 자녀에게 영육간 양식, 악에서 안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

녀들에게 왜곡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 상담가인 데이빗 시먼즈 목사님은 그가 지은 책, ‘치유하시는 은혜’에서 오늘날 자녀를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모는 늘 자녀가 성취한 결과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자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오지 못하면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감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족시켜야 칭찬도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과연 크리스천 부모님이라서 다를까?

필자는 교회의 중요 리더들의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의 가식적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989년에 나온 영화 ‘꿈의 구장’(Field of dream)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이다. 주인공 레이 킨셀라(에빈 코스트너)는 어렸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아 오지 못하면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감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족시켜야 칭찬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과연 크리스천 부모님이라서 다를까?

이기심과 악이 장궤하기 시작했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짓밟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살롬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 알버트 윌터스가 그 책 “Creation regained”에서 말한 대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회복함으로 살롬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그러한 방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 칼럼을 저술한 이유이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교회가 다시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살롬 교육 방법론으로 교육의 목표, 방법, 내용, 평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부모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곧 신실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는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이치이다.

그런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사도바울은 계속 훈계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다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갈6:8). 부모님들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령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신령한 것을 거두는 법! 자녀에게 늘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성령으로 심는 부모님이 되기를 권면하여 한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부모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물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셋째, '목회의 모델'에 대한 갈등과 혼동(모범생활에 대한 압박의식)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코로네트'(Coronet Magazine)라는 잡지에 기고된 '목사 아내의 숨겨진 고민'이란 글에서 루시 프리먼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목사의 아내는 설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녀는 가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야하고, 아이들을 완전하게 길러야 하며, 종종 성도들의 이어나 사랑도 없이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집회며 새벽기도회 등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사모는 마치 '목회의 모델'과 같은 입장에서 오는 갈등과 혼동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장이,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서 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목사 사모도 안하는데 왜 제가 합니까?"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모님에게

에 동참하면서 오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남편 목사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믿는다.

한번은 필자가 갈보리체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척 스미스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기 사모에 대해 아주 강하게 대변하시는 모습에 필자는 같은 사모로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설교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저는 사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매일 식사를 만들어 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를 항상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모 한 사람뿐입니다. 만일 다른 봉사자들이 없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지만 저는 사모가 없으면 다른 봉사자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사모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

당회장 사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새로운 사모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편 목사님은 몇 배나 바빠졌고 아내인 사모는 몇 배나 한가해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 사모단상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루는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저의 사명이 다 끝났으면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휴스턴에서는 자녀들이 어련데도 시간을 내서 섬겼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시간도 많은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차라리 저를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집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참소를 이기는 신자(롬8:33)찬388장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사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사탄의 고소는 우리 속의 죄책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은 소리칩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의 종이 돼 또 다른 죄로 나가기 쉽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히10:22).

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롬8:44)찬184장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돼 완전히 죽었습니다(갈2:20). 이런 절대죽음에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의 부활로 인해 거듭남을 얻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 새 생명이 부활생명, 곧 영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우리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승리는 우리의 완전승리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있는 그런 확신과 담력으로 살아갑시다.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롬8:35-36)찬513장
세상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려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배후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환경의 위험에서도 이깁니다. 도살할 양같이 위험과 칼로 육체의 체형이 직접 가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받쳐줍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목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롬8:38-39)찬408장
사도는 성자의 사랑이 성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큰 사랑의 구원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어떤 위험에서 이깁니까? 첫째, 그는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이 통제함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생명, 극과 극에 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드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죽으나 사나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려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둘째, 영계의 권세 역시 그 사랑이 작용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악령이 별일을 다 해도 그 사랑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셋째, 시공간을 뛰어 넘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현재 일이나 장애, 일들, 능력, 높은, 다른 피조물의 위험 속에서도 성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깁니다.

금 사도가 본 구원세계(롬9:1-3)찬175장
이 놀라운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본 사도는 이를 모르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첫째,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영적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라보고 탄식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십니다.

토 바울의 찬양(롬9:4-5)찬138장
동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마쳐집니다. 그는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그리고 약속들을 선물로 받은 택함 받은 민족이구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만 살다가 버림받은 것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0)



이희숙 사모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하더라는 것이다.

넷째, 받은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묻어 둘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모가 남편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동역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열심과 의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장이 되지 않아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좌절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면 "사모가 너무나 설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럴 때면 "하지만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산다고 합니다"라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은사와 능력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남편 목사님이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가능하다.

필자의 남편 목사는 당회원 회의 중에 "교인 중에 당회장 목사님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저를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님의 보고에서 "사모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가는 장로들이 꾸짖을 듣는다고 한다. "장로가 그것 하나 설명 못하고 당회까지 가지고 나오냐?"하면서 야단을 치신다는 것을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 해 주셨다. 그러면서 "참 사모님은 행복합니다"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이다. 오늘날 필자가 여기까지 사역

남편 목사가 사역에 동참하는 아내인 사모를 절대 보호하며 대변 해주어야 사모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에제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사모는 절대로 목사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 항상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

입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렸다. 맞는 말이다. 남편 목사가 사역에 동참하는 아내인 사모를 절대 보호하며 대변해주어야 사모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에제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사모는 절대로 목사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 항상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

1989년에 남편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의 당회장으로 청빙을 받아 사역지를 옮겨 목회하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동양선교교회는 그 당시 부교역자가 10명이나 되어 사모가 나서서 할 일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전임

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아내의 처절한 기도소리를 듣고는 놀랐다.

"여보, 지금 이 큰 새 교회에 와서 사모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시간 있을 때 집에서 가까이 있는 풀리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 어때요? 학자금은 내가 대줄 테니까"하며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필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풀리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결국에는 목회학박사까지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격려해 준 남편 목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hslee39@sbcgloba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9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예배: 오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10-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82)2-2341-3, 팩스: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shinch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동 17길 29(잠실동)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인/터/뷰 해외한인장로회 신임 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세계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편집자주]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42회 총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 까지 멕시코 칸쿤 파라다이스 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총회장으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총회장 박성규 목사는 향후 1년 동안 이끌어갈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 포부를 밝혔다.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박성규 총회장의 모습은 2017년 후반과 2018년 전반 해외한인총회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했다.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동안 연단해서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외한인장로회가 하나님나라 확장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행1:8)는 분부를 지상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선교를 확장하는 일과 교단내의 교회 부흥과 교회 개척을 독려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롤모델(Roll Model)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세계를 품고 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회를 다니면서 이런 회복의 운동과 차세대 인재 양성운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교단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

직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버그(wittenberg) 성교회 정문에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반박문위엔 십자가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모든 교회는 말씀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John Calvin)입니다. 그는 제네바를 말씀과 십자가 사랑의 실천으로 제네바를 성시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법이 성행하며, 진리를 거스리는 배도의 시대, 물질만능,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복신앙, 적그리스도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 오고 있고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을 밀어내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모든 분야를 장악

가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 부흥의 역사가 올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목회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력, 실력, 박력, 체력, 감화력 등 오력이 저의 목회철학입니다.

하루 2시간이상 기도하여 영력을 쌓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열심히 탐독하여 실력을 쌓아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내공을 쌓아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로 적그리스도의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의분을 안고 어둠의 세상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박력을 소유하려 합니다.

또 하루 1시간이상 열심히 운동하여 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사람을 품는 감화력으로 주님의 양 무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저의 목회철학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아군의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영적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이 땅에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현재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장로회신학대학(Th.B)과 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시카고 맥코믹(McCormick)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박의숙 사모와 주은, 주혜, 주희 3녀가 있다. (이성자 기자)

교회 거룩성 회복 운동과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 목회철학은 영력, 실력, 박력, 체력, 감화력의 오력

-총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와 남미지역,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유럽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22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는 해외 이민교단으로는 최대교단으로 462교회와 974명의 목회자와 10만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과 비전은? 해외한인장로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교의 항공모함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힘쓰며, 차세대를 이 시대의 요셉과 에스더 같은 탁월한 리더자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실천 단체에서 지난 10년간 "기독교에 대한 사회인들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았는

데, 신뢰도가 20%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신자들의 언행의 불일치이고 두 번째가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의 등불이 되려면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목회자들의 정직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다면?

해외한인장로회 제42회 총회 주제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Let us pursue our mission in this generation)"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517년 부패한 중세 교황권에 도전하여 "오직말씀, 오직믿음, 오

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연기가 태양을 가리듯 거짓교훈과 이단사상과 잘못된 신학이 진리를 가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선지자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

(4면에서 계속) 마치 오랜 옛날 아비멜렉과 발람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느브갓네살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고레스왕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이방 대제국의 왕이나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게 되니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을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이 이룬 대 제국 역시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동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어야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관용을 베풀(4)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 와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즉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잔류자 모두를 포함하는 포로귀환 조치를 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용이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처였던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은 2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과 대비하여 예언한 바 있다(출3:21, 2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 이집트 거주민들이 주는 금은 패물과 의복 등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11:16, 즉 앗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 올 때 출애굽할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그리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조서를 내리는 관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관용이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관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헌신을 하게 됨(5)

왕명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려고 유대도 돌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자들이었다. 즉 많은 이들이 포로된 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바 되어 다시 되돌

아 온 자들로서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하였기에 1세대들은 늙고 힘이 없어졌고, 포로로서 타국의 삶에 익숙해진 2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헌신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4. 자원하게 됨(6-11)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예상 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열 지파는 조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유대와 배나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만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루어 놓은 생활터전과 부를 포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었지만 그 백성 대부분은 현세에 더 안주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경홀히 여기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생활 터전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 족속들과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한 금, 은 보화들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명들의 반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명들은 원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구들로서 바벨론의 느브갓

에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침공을 하면서 전리품으로 또는 보물로 탈취해 갔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의 정책에 따라 그때까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모든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역시 고레스 왕의 이러한 결정이 고레스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였기 때문임을 알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 자원함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고 관용을 베풀며 헌신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spcny@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8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순옥, 신동기, 오경창, 이숙규, 이재환, 최정환, 정지훈
- 기독교 교육학 석사
김미영
- 여교역학과 (Diploma)
문종희, 박정자, 이소영
- 신학사 (B.Th)
김금희, 김정민, 전행복, 전미라, 이선자

일 시: 주후 2017년 6월 5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 로 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 장 장 영 춘 박사
이사장 김 성 국 박사